



배리 젠킨스 감독의 '문라이트'가 제89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받았다

'문라이트', 올해 최고 영화 선정

아카데미시상식 최다 후보 오른 '라라랜드' 감독상·여우주연상 등 6관왕 89년 역사상 처음 남녀 조연상에 흑인 배우 마허살라 알리·바이올라 데이비스

배리 젠킨스(41) 감독의 '문라이트'가 작품상을 받으며 올해 최고 영화에 선정됐다. 올해 시상식 최다인 13개 부문에 14개 후보를 올린 '라라랜드'는 감독상·여우주연상 등 6관왕에 올랐다.

'문라이트'는 26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돌비극장에서 열린 제89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컨택트' '엑소 고지' '히든 피겨스' '라이언 레노' '로스트 인 더스트' '맨체스터 바이 더 씨'를 제치고 작품상을 받았다.

'문라이트'는 작품상과 함께 남우조연상(마허살라 알리)·각색상도 함께 받아 3관왕에 올랐다.

흑인 감독 작품이 오스카 작품상을 받은 건 86회 시상식 당시 '노예 12년'(감독 스티브 매킨) 이후 두 번째다.

'문라이트'는 영화를 시(詩)의 경지로 끌어올렸다는 극찬을 받는다.

영화는 흑인이자 동성애자이고, 지독한 가난에 시달리고, 아빠는 없고 엄마는 마약중독자인 소년 '사비론'을 통해 그가 사회적 편견에 맞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다.

젠킨스 감독은 이 서사를 단순 이야기로 풀어내는 게 아니라 감각적인 촬영과 편집, 강렬한 음악과 조명, 생생한 눈빛과 서글픈 웃모습으로 담아내는 영화적 매력을 선사했다는 극찬을 이끌어냈다.

젠킨스 감독은 또 '문라이트'를 통해 '소년의 정체성 찾기'라는 주제를 넘어 흑인·동성애자·마약중독자 등을 둘러싼 미국 사회 폐부를 깊이 들여다봤다는 점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가장 강력한 작품상·감독상 후보였던 '라라랜드'(감독 데이미언 셔젤)는 감독상·여우주연상·촬영상·미술상·주제가상·음악상 등 6관왕에 올랐다.

데이미언 셔젤(32) 감독은 87회 시상식에서 '위플래쉬'로 오스카 3관왕(남우조연상·편집상·음향믹싱상)을 받은 데 이후 후속작으로 올해 최다 수상을 이끌어내면서 할리우드에서 가장 촉망받는 감독으로 떠올랐다.

셔젤은 역대 최연소 감독상 수상자이기도 하다.

올해 남·녀주연상은 각각 맨체스터 바이 더 씨의 케이지 애플렉, '라라랜드'의

에마 스톤에게 돌아갔다.

주연상보다 주목받은 건 조연상이었다.

아카데미는 89년 역사상 처음으로 남·녀조연상을 흑인 배우인 마허살라 알리와 바이올라 데이비스에게 선사했다.

네 개 연기 부문 오스카 중 2개 이상을 흑인 배우가 가져간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74회 시상식에서 덴젤 워싱턴과 할리 베리가 각각 '트레이닝 데이'와 '몬스터 볼'로 남·녀주연상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아카데미 역사상 최고 실수가 최고상인 작품상 시상 도중 벌어지기도 했다.

작품상 시상자로 나선 배우 워런 비티가 수상자를 잘못 발표한 것. 비티는 작품상 수상자가 적힌 봉투가 아닌 여우주연상 수상자(라라랜드) 에마 스톤가 적힌 봉투를 잘못 가지고 나왔고, '라라랜드'를 작품상 수상작으로 잘못 호명했다.

'라라랜드' 제작진·배우가 모두 무대 위로 올라와 수상 소감을 말하던 중 이카데미 측이 수상자를 '문라이트'로 잘못 발표했고, 뒤늦게 오스카를 품에 넣은 '문라이트' 젠킨스 감독은 "꿈에서도 일

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사회자로 나선 지기 키말은 행사가 시작하자마자 "국가가 분열됐다"며 "이제 우리는 한 데 모여야 한다. 미국이 한 곳으로 뭉치길 바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키말은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다. 지난해 오스카가 매우 인종차별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올해 후보자(작)를 보니 그런 경향은 사라진 것 같다. 모두 트럼프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세릴 분 아이작스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 회장은 "예술에는 경계가 없다. 예술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힘을 가지고 있고, 그 결과로 전 세계 모든 예술가를 유대감으로 한 데 묶는다. 우리가 여기 모인 게 바로 그 증거"라고 했다.

아카데미는 약 3시간 가까이 진행된 행사 내내 자리를 지켜야 하는 참석자들을 위해 전장에서 쿠키와 사탕을 내려주기도 해 웃음을 자아냈다.

/뉴시스



양희영, 여자골프 세계랭킹 8위에 올라

2년 만에 우승을 맛 본 양희영(28·PNS참호)이 세계랭킹 '톱10'에 복귀했다.

양희영은 27일(한국시간) 발표된 플렉스 여자골프 세계랭킹에서 랭킹포인트 5.80점으로 지난주 11위에서 3계단이 오른 8위를 차지했다.

양희영은 전남 태국에서 막을 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혼다 타이일랜드'에서 대회 최저타기록인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정상을 밟았다.

지난 2015년 이 대회 우승 이후 2년 만에 타이틀을 탈환하며 시즌 첫 승이자 통산 3승째를 달성했다.

이번 우승으로 지난주까지 11위였던 세계랭킹도 8위가 됐다.

양희영이 톱10에 복귀하면서 김세영(24·미래에셋)이 9위로 밀렸고, 이번 주 데뷔전을 앞둔 박성현(24·하나금융그룹)은 11위가 됐다.

시즌 첫 대회에서 공동 4위를 한 전인지(23·6.34점)는 평산신(중국·6.30점)을 4위로 밀어내고 3위 자리를 되찾았다.

2주전 호주 여자 오픈에서 우승하며 5위로 올라섰던 장하나(25·BC카드)는 1주일만에 렉시 톰슨(미국)과 자리 바꿈했다.

리디아 고(뉴질랜드)는 7주차 1위를 지켰다. 에리아 쭈다누간(태국)이 2위를 유지했다.

/김민근기자

동계종합경기대회 선수단 환영 오찬 행사 개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28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 1층 올림픽아홀에서 대한체육회와 함께 '2017 국제동계종합경기대회 대표 선수단 환영 오찬' 행사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2017 알마티동계유니버시아드와 2017 삿포로동계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한 대한민국 선수단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체부 유동훈 제2차관을 비롯해 대한체육회 전총련 사무총장, 알마티 대회 김지용 선수단장과 선수단 삿포로 대회 김상환 선수단장과 선수단 동계 종목 단체장 등 250여 명이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환영 오찬은 문체부 차관과 체육회장의 축사, 각 대회 선수단장의 참가 결과 보고, 선수단 기념품 증정, 축하공연, 오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대한민국은 알마티동계유니버시아드에서 금 11개, 은 5개, 동 5개 총 21개 메달로 종합순위 3위를 달성했다.

삿포로동계아시아경기대회에서는 금 16개, 은 18개, 동 16개 총 50개 메달로 종합순위 2위에 올랐다.

문체부 유동훈 제2차관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전초전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선수단이 매우 자랑스럽다. 평창에서도 우리 선수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